인문연구 제94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1. Vol. 94, No. 1, pp.175~204
http://dx.doi.org/10.21211/JHUM.94.6

근본불교 미술에 관한 문헌학적 고찰

- 율장과 아함경을 중심으로 -

이종억*

〈차 례〉

1. 머리말
2. 석가모니의 미술관과 근본불교미술의 도상학적 형태와 양식
  1) 석가모니의 미술에 대한 부정과 긍정
  2) 석가모니가 허용한 미술의 도상학적 제재와 양식
3. 석가모니 생존 시 건립된 탑
  1) 석가모니 발조탑
  2) 사리자탑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석가모니 생존 당시 미술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문헌학적 연구방법론으로 초기 경전 중 아함경부 경전인『長阿含經』,『中阿含經』,『雜阿含經』,『增一阿含經』과 율장부 경전인『四分律』,『十誦律』,『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를 분석한다.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

불교미술은 석가모니 사후 약 100년 후 부파불교시대부터 나타기 시작하였다는 기존 연구와 달리, 이 연구는 문헌학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석가모니 생존 시 이미 불교 미술의 원형이 있었다는 것을 밝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가모니의 미술에 대한 인식 탐색을 통해 보건대 대승불교미술에서 통일되는 불교미술사상의 원류가 이미 초기 경전에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석가모니가 허용한 도상적 형상들은 이후 수 천년동안 불교미술에 있어 계속성을 갖는다.

셋째, 석가모니 생존 시 髮爪塔과 舍利子의 탑에 관한 기록에서 불교 스투파의 원형을 찾는다.

이 논문은 불교미술의 사상적 도상적 원류를 초기 경전에서 찾았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근본불교 미술, 석가모니의 미술관, 발조탑, 사리불탑, 아함경, 율장

1. 머리말

불교미술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이에 대해 디트리히 젝켈(Dietrich Seckel)은 석가모니 열반 후 200년쯤 뒤인 기원전 300년경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왕이 세운 불교기념물을 세우기 전까지 불교미술은 없었다고 한다.[1] 젝켈은 이에 대해 두 가지 근거를 제

1) "부처가 아마도 기원전 483년 열반에 들어간 뒤, 첫 2백 년 동안에 불교미술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한 미술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전혀 없으며 또 존재했을 가능성도 없다. 그 당시 불교신자

시한다. 첫째, 당시 승려들이 거주하는 사찰이나 수도원이 없었고, 둘째, 불상을 포함한 불교미술이 부처의 근본 가르침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석가모니가 깨달음 얻은 후 약 20여 년 간 머물렀던 사위국 기원정사에 대해 『십송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그 때 거사는 왕자가 그 자리에 문간을 세워 부처님과 대중들에게 보시하도록 하였고, 이때 거사는 사리불을 스승으로 삼아 이 원림(園林) 가운데 16동의 이층 누각과 육십여 개의 암자를 세웠다.[2)]

이 기록은 현재 남아있는 기원정사 터의 규모를 보더라도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사원이나 수도원이 없었기 때문에 불교미술이 없었을 것이라는 젝켈의 말은 근거를 잃는다. 또한 아래의 계율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기원정사에 벽화가 있었음을 반증한다.

>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 한 비구가 속옷을 입지 않고 벽화를 새로 그리고자 벽에 가까이 서서 예전에 있던 그림을 벗겨냈다. 이러한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 "지금부터 비구가 속옷을 입지 않고 벽에다 그림을 그리면 돌길라 죄가 되느니라."[3)]

더욱이 석가모니의 위대한 제자였던 사리불과 목건련은 부처님

들의 공동체를 구성했던 승려들의 배타적이고 검약한 집단은 사찰이나 수도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불상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부처의 원래의 가르침과 전적으로 조화되지 않는 불상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 디트리히 젝켈, 백승길 역, 『불교미술』, 열화당, 1996, p. 25.

2) 『십송율』2, 제34권, 동국역경원, 2002. (이하 경전일 경우 '동국역경원, 2002'는 생략) p. 441.

3) 『십송율』2, 제39권, p. 626.

보다 먼저 열반하였다.

> 사리불과 목건련이 열반에 들었는데, 어떤 시주가 와서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탑을 세워도 좋다 하시면, 우리들이 세우리라."하였다. 비구들이 부처님께 사뢰니 부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다. 그들이 어떻게 만들지 모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 "네모나, 둥글게나, 여덟 모로 만들라." 하셨다.[4]

이렇게 조성된 사리자와 목건련의 탑은 불교미술의 대표적 상징인 탑의 원형일 것이고 이에 대한 석가모니의 교시는 이후 불탑신앙의 사상적 근원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석가모니 생존 당시 승려들의 사원 생활을 추측할 수 있는 율장과 최초의 가르침을 모은 경전인 『阿含經』을 중심으로 석가모니가 허용한 미술의 양식과 도상, 그리고 석가모니 생존 시 건립 된 탑에 관한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불교 미술의 도상적, 양식적 원형과 사상적 원류를 탐색하고자 한다.

2. 석가모니의 미술관과 근본불교미술의 도상학적 형태와 양식

1) 석가모니의 미술에 대한 부정과 긍정

석가모니 근본 사상의 주요 개념인 '無我'의 관점에서 미술을 바라본다면 부정적인 인식태도가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석가모니는 무아관을 전개할 때 인간이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

4) 『사분율』3, 제52권, 「여러 가지 법 2」, p. 328.

눈을 통한 인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 비구여 눈과 색이 인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이 세 가지가 화합한 것이 촉이니 촉과 함께하면 수(受), 상(想), 사(思)가 생긴다. 그러나 이런 모든 법은 아(我)가 아니요, 상(常)이 아니니, 이것은 무상한 나요, 항상이 아니요, 안온이 아니며, 변하고 바뀌는 안(岸)이니라.[5]

> 만일 눈으로 색을 본 뒤에 색을 깨달아 알더라도 색에 대한 탐욕을 일으키지 않고, 참다이 색을 알아 색에 대한 탐욕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참다이 알면 이것을 불꽃이 멸함, 때를 기다리지 않음, 바르게 향함, 바른 소견, 인연으로 스스로 깨달음이라고 하나니, 귀, 코, 혀, 몸, 뜻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6]

인간의 감각 중 시각은 그 대상인 색, 즉 형태, 색깔 등 외형과, 눈(眼), 그리고 시각의 판단, 기억 작용을 하는 안식(眼識), 이 셋이 결합(觸)하여 상상, 구상, 사고의 작용을 하는 것으로 고정불변한 실체(我)가 없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조건, 상황에 따라 변하고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개인의 시각적 경험을 고집, 집착하여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그 본질, 즉 인식 주체와 그 대상이 실체 없음을 바르게 안다면 '바른 소견', '바른 깨달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세존의 현명한 제자들은 눈으로 색을 보아도 집착하지 않고 더러운 마음 없이 '이 눈은 덧없는 것으로서 괴롭고 공하고 아(我)가 아닌 것이다'라고 분별한다.[7]

이러한 인식태도는 승려나 부처님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

---

5) 『잡아함경』1, 제11권, 273 「수성유경」, p. 296.
6) 上揭書, 제8권, 215, 「부루나경」, p. 220.
7) 『증일아함경』2, 제32권, 「역품 2」, p. 143.

쳐 미묘한 음성을 가졌으나 용모가 추하여 왕의 무시를 당했던 구수선화가

> 만약 색(色)으로써 나를 보거나
> 음성으로써 나를 구하면
> 애욕으로 어지러운 마음인지라
> 능히 나를 보지 못하리.[8]

라 한 것과 『金剛經』에서 "만약 色으로써 나를 찾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이런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라 여래를 볼 수 없느니라"라는 게송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입장에서 석가모니는 미술 행위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석가모니의 동생으로서 억지로 출가하여 집에 두고 온 부인을 그리워하던 난타가 돌 위에 부인의 모양을 그리자

> 그 때 대가섭이 지나다가 보고 물었다.
> "난타여, 그대는 무엇을 하는가?"
> "대덕이시여, 나는 손타라의 모양을 그렸습니다."
> "구수여,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두 가지 일을 시키셨으니 하나는 정을 익히는 것이요, 하나는 경을 독송하는 것이다. 그대는 이제 이것을 버리고 아내의 모양이나 그린단 말인가."
> 그가 듣고는 묵묵히 있었다. 가섭이 이 일을 부처님께 사뢰니 부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비구가 그림을 그리면 이런 허물이 생기는 구나'하시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 "어리석은 난타가 손타라를 생각하고는 그 모양을 그렸다. 이 뒤에 비구들은 마땅히 그림을 그리지 말라, 만약 그리는 자는 법을 어기는 죄를 얻느니라."[9]

---

8)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1, 제4권, 「제일문 자섭송 5」, p. 83.
9)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1, 제11권, 「제2문 자섭송 10」, pp. 206-8.

라고 미술행위를 금하는 계율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규모가 큰 사원 특성상 완전한 금계는 문제가 되었다.

> 그 뒤로 비구들이 부처님께서 그림을 제지하신 것을 듣고는 탑사의 처소에 향을 바르는 것도 감히 하지 못하니 부처님께서 아난타에세 물으셨다.
> "어찌하여 여래의 발조(髮爪)솔도파에 향을 바르고 향니를 땅에 뿌리지 않느냐?"
> 아난타가 그 연유를 사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 "마땅히 향니를 쓰는 것은 마음대로 바르고 닦고 하되 중생의 형상은 그리지 말라. 그리는 자는 법을 어기는 죄를 얻느니라. 그러나 만약 시체나 해골의 모양을 그리는 것은 (계를)범함이 없느니라."[10]

> 가끔 도둑이 와서 승방 창고의 물건과 승려의 개인 물건을 훔쳐가는 데 표시가 될 만한 것이 없으니 비구들이 언제 물건을 잃었는지 알 수 없었다.
> 부처님께서 비구도 도장을 지니는 것이 좋다고 하시니 이에 6군비구들이……
> 도장에다 남녀가 옳지 않은 짓을 하는 모양을 새기니 속인들이 보고 비난하기를 "당신들은 사문이면서 아직도 더러운 욕심이 있는가" 하였다."[11]

>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에, 말리부인이 스님들에게 높은 평상을 보시하자 부처님께서 허락하셨다. 말리부인이 속으로 '부처님께서 내가 이런 높은 평상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 "남녀가 서로 정을 나누는 그림을 제외한 나머지 그림은 허락하노라."[12]

---

10) 上揭書, p. 209.
11) 上揭書, 제1권, 「제일문자섭송 1」, p. 26.
12) 『십송율』2, 제38권, p. 602.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 발제장자가 커다란 승방을 짓고 생각하기를 '내가 푸른색, 빨간색, 흰색, 검은 색 등 갖가지로 단청을 한 다음에 이 승방을 스님들에게 보시하도록 부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 하였다.

이러한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허락하셨다.[13]

이러한 이유 등으로 탑의 관리, 분실물 방지를 위한 개인 도장과 사원 공용 인장, 신도의 공양, 승방의 신축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다.

2) 석가모니가 허용한 미술의 도상학적 제재와 양식

사원 생활의 필요와 신도의 보시 수용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미술 작업을 허용한 석가모니는 미술의 도상학적 제재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을 제정하게 된다. 그 원칙은 앞의 인용문에서 보여주듯 남녀의 형상이나 남녀의 애정행위에 관한 것은 금하는 것을 공통적이고 제일의 원칙으로 하였다.

급고독거사가 다시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제가 빨간 색, 검은색, 흰색으로 사리탑의 벽을 색칠하도록 허락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빨간색, 검은색, 흰색으로 벽에 색칠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그러자 다시 거사가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제가 탑에 벽화를 그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청하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녀가 교합하는 형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리는 것을 허락하노라."[14]

---

13) 上揭書, p. 610.

14) 『십송율』2, 제38권, p. 275.

급고독거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원컨대 제가 수놓은 양탄자를 대중스님들께 보시하도록 허락하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을 새겨 넣은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허락하노라."[15]

이외에 석가모니가 허용한 도상들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대체로 도장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대중의 것이요, 하나는 개인의 것인데, 대중의 도장에는 법륜 굴리는 모양을 새기고, 양 가에는 사슴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며 그 밑에는 시주명단을 새기며, 개인도장에는 흩어진 뼈의 형상(骨鎖像)을 새기거나 혹은 해골 모양을 만들지니, 볼 때마다 싫어하고 떠나는 생각을 내게 하고자함 때문이니라.[16]

급고독장자가 동산을 바친 뒤에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약 단청을 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으니 부처님께서 만약 허락하신다면 내가 장식을 해야겠다.'하고 부처님께 가서 사뢰니 부처님께서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라고 하셨다.
부처님의 허락을 듣고는 여러 가지 채색을 모으고 화공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이 채색은 이 절에 단청할 것이요."
화공이 물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릴 것입니까?"
"나도 잘 모르겠으니 마땅히 부처님께 가서 여쭤봐야겠소."
하고 부처님께 사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여, 문 양 쪽에는 몽둥이를 든 야차를 그리고, 다음 곁으로 한 면에는 큰 신통변화도를 그리고, 또 한 면에는 오취의 생사윤회하는 것을 그리고, 처마 밑에는 본생의 일을, 불전 문 옆에는 화만을 가진 야차를, 강당에는 노비구가 설법하는 것을, 식당에는 음식을 받들고

15) 上揭書, 제61권, pp. 432-3.
16)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1, 제1권, 「자섭송 1」, p. 26.

있는 야차를, 창고 문 옆에는 보배를 가진 야차를, 수각(安水堂)에는 물병을 가진 용이 기묘한 영락을 걸친 것을, 욕실과 화당(火堂)에는 천사경(天使經)[17] 법식에 의한 것과 아울러 여러 가지 지옥의 변상을 그리고, 요양실(瞻病堂)에는 여래상(如來像)을 그리되 친히 간병하는 것을 그리고, 대소변을 보는 곳에는 시체를 그리되 형용을 무섭게 그리고, 방 안에는 마땅히 백골인 뼈를 그리라."

이 때 장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절하고 물러나 가르침대로 단청하여 그림을 마치었다.[18]

이 상의 글에서 언급된 도상들을 정리하면, 공통적으로 해골모양이 주를 이루고, 좌우에 사슴이 앉아 있는 법륜, 몽둥이, 꽃다발, 음식, 보배를 든 야차, 각 세계를 윤회하는 중생들, 신통변화하는 상, 물병을 든 용, 비구의 설법상, 부처님의 본생담, 지옥도, 여래가 병든 비구를 간호하는 그림, 험하게 생긴 시체, 백골 등이다. 이러한 도상들은 이후 모든 불교국가의 회화나 조각에 공통적이며 계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여래의 본생담이나 간병하는 여래상이 언급된 것을 보면 기존 학계에서 대승불교시대 이후에야 불상이 그려진다고 한 것과는 달리 석가모니 재세 시에 이미 부처의 형상이 제한적으로 그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장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절하고 물러나 가르침대로 단청하여 그림을 마치었다.

그런데 어느 비구가 아무데서나 불을 피워서 연기로 그림이 그을러서 손상되었다. ……

비구가 처마 밑에서 세수하고 목욕해서 습기가 차서 벽화를 손상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

17) 『증일아함경』1, 제12권, 64, 「천사경」 제7권, pp. 276-87. 각종 지옥에 관한 내용.

18)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1, 제17권, 「자섭송」 7, pp. 339-40.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절 안 가까운 한 귀퉁이에서 얼굴은 불상을 향하고(面向佛像) 씻을 것이며 혹은 따로 욕실을 만들어라."[19]

이와 같이 기원정사의 벽화 중에는 부처님 형상이 이미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급고독장자가 부처님께 석굴 조성을 허락받는 대목에서는 '菩薩侍像'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또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제가 석굴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허락하노라."
……
"부처님께서 제가 (석굴의)기둥과 탑에 그림을 그리도록 허락하시면 좋겠습니다."
"남녀가 교합하는 형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리는 것을 허락하노라."
이 때 급고독거사가 신심이 깨끗하였기에 부처님께서 계신 처소를 참례하여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찌 부처님의 신상(佛身像)을 조성할 것을 바랄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원컨대 부처님께서 제가 보살이 시립하여 있는 형상(菩薩侍像)을 그리도록 허락하신다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상(菩薩像)을 짓는 것을 허락하노라."[20]

급고독장자는 굴로 된 사원 안에 기둥과 탑을 조성하고 거기에 그림을 그리거나 부조로 새기는 데 부처님 신상을 조성하고 싶은 바램이 있으나 부처님 신상은 감히 청하지 못하고 보살상을 지을

19) 上揭書. p. 340. 苾芻於簷下洗浴濕損壁畫 佛言 不應爾 可於寺內近一角頭面向佛像 而爲澡浴 或可別作洗浴之室,『大正新修 大藏經 第二四卷 律部三』, p. 283.
20)『십송율』3, 제48권, p. 274.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으로서 보살상도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여기서 '보살시상'[21]이라는 단어를 보면 좌우에 보살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상이었을 것이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아 부처님의 신상은 비워두었거나 다른 상징물로 대체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부처님께서 제가 탑전에 받침대를 세워 사자상을 안치하도록 허락하신다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허락하노라."

"부처님께서 사자 네 변에 난간을 설치하도록 허락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사자상 네 변에 난간을 안치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

"부처님께서 제가 구리로 사자를 조성하도록 허락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부처님께 아뢰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동으로 사자를 만드는 것을 허락하노라."[22]

다른 神像과 문양에 관한 언급 또한 살펴볼 수 있다.

비구들이 깨끗하지 않은 땅에서 옷을 꿰메어 옷이 더러워지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우분(牛糞)[23]으로 깨끗이 땅을 닦아서 만다라를 짓고 마르기를 기다려 그 위에서 옷을 지으라."고 하셨다.

---

21) 世尊 如佛身像不應作願 佛聽我作菩薩侍像者善 佛言 聽作菩薩像『大正新修 大藏經 第二三卷 律部二』, p. 355.

22) 上揭書, p. 275.

23) 쇠똥. 인도의 일상에서는 소의 똥을 청정한 것으로 여기 사물을 깨끗이 하는 데 반드시 이것을 사용함. 밀교의 의궤에서도 이에 모방하여 우분을 제단에 칠하여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관습이 있음.『불교대사전』하, p. 1884.

부처님께서 만다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으나 쇠똥을 얻기 어려웠으므로 부처님께서 "그 땅에 물을 뿌리고 깨끗이 쓸고 그리고 나서 옷을 놓으라."고 하셨다.[24]

"…… 만일 향기가 많은 진흙이 있거든 손의 형상이나, 바퀴의 형상이나, 마혜수라의 형상이나, 등칡의 형상이나, 포도덩굴의 형상이나, 연꽃의 형상을 만들라. 만일 그래도 남거든 땅에 바르라."고 하셨다.[25]

이와 같이 그 형태나 구체적 제작방법은 기술 된 것이 없지만 땅에 만다라를 짓도록 한 것과, 손모양, 바퀴, 마혜수라천의 형상, 등칡, 포도덩굴, 연꽃의 문양에 대해 제시되고 있어 이미 근본불교 시대에 불교미술의 문양이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여래상, 보살상을 비롯하여, 부처나 진리를 상징하는 법륜, 사자상, 그리고 야차와 마혜수라의 신상과 연꽃, 등칡문양 등이 석가모니 생존 시에 불교미술의 도상과 양식으로서 석가모니에 의해 제시되었고 조성되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지금까지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도상과 문양으로 계승되고 있다.

불교미술은 승려 개인과 사원 공용의 인장을 허락하는,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나 이어 신도들의 공양물 즉, 평상이나 양탄자에서 그림이나 장식을 허락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이어 승방이나 동굴사원, 탑을 조성하여 보시하는 신도들의 요청에 의해 단청과 벽화가 허용되는 것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미술적 행위나 내용은 석가모니의 근본사상과 배치되는 것인가? 승려가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다는 계율이 정해지게 된 연유가 된 일화에서 석가모니는 난타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침을 준다.

---

24) 『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1, 제13권, 제3문, 「자섭송 1」, p. 248.
25) 『사분율』3, 제52권, 「여러 가지 법 2」, p. 329.

…… 난타야, 마땅히 알라. 이 몸뚱이는 언제나 온갖 깨끗지 못한 것의 굴택이며, 몸이 항상한 것도 아닌데,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유혹하고 속이고 어둡게 하는 것이다. 이 몸은 뼈로서 기관을 만들고 힘줄과 맥이 서로 이어 있으며 모든 구멍이 통하고, 기름과 살과 골수가 함께 서로 얽힌 것을 가죽으로 위를 덮어서 그 허술함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그 뜨거운 굴 속에는 부정한 것이 가득 차 있고, 털, 손톱, 이가 자리를 나누어 구별되며 아와 아소를 고집하므로 항상 걸리고 굴리어 자유를 얻지 못하느니라. …… 너는 이제 마땅히 육안으로 보는 바로써 관찰 할 제 보는 바가 다 허망한 것임을 알라, 곧 이것이 해탈이니라.[26]

이처럼 자기 자신의 태어남과 죽음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관찰하라고 한다. 이를 「入胎經」이라고 하고, 여기서 대표적인 불교 수행인 위빠사나의 하나인 '內身觀'을 제시한다. 또한

비구는 송장 뼈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되 손뼈, 다리뼈가 각각 다른 곳에 있고, 혹 장딴지뼈, 허리뼈, 엉덩이뼈, 팔뼈, 어깨뼈, 갈비뼈, 등뼈, 이마뼈, 해골이 흩어져 있는 것을 관하고, 또 그 몸도 그것과 다름없어 '나도 저런 법을 면하지 못하고 내 몸도 무너져 없어질 것이다'라고 관한다. …… 다시 비구는 송장의 흰빛과 흰 구슬 빛이 된 것을 관하고 제 몸도 그것과 다름이 없어 '나도 저런 법을 면하지 못 한다'라고 관한다. 이것을 일러 '비구가 자기 몸을 관하는 것'이라 한다.[27]

라는 '白骨觀'의 수행법도 제시한다. 석가모니가 허용한 시체의 형상이나 백골의 도상들은 승려들이 그 그림이나 조각을 보면서 '내신관'과 '백골관'이라는 수행을 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여래 자신의 형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26)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1, 제12권, 「제2문 자섭송」, pp. 230-5.
27) 『증일아함경』1, 제5권, 제12 「일입도품」, p. 89.

난타야, 너는 나를 믿지 말라. 내가 하고자 함을 따르지 말라. 내 말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양을 보지 말라. …… 그러나 내가 증득한 법에 대해서만은 홀로 고요한 곳에 있으면서 생각하고 관하여 항상 많이 닦고 익혀라. 마음을 써서 본 법에 따르고 곧 그 법에 관상(觀想)을 성취하고 바른 생각에 머물러라.[28]

색상을 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덟 가지 버리는 경계가 있다. 어떤 것이 여덟 가지인가? 비구는 안에 색이라는 생각이 있어 밖으로 색을 관찰하여 '아주 작은 좋은 색이나 나쁜 색이라도 그것을 버린 뒤에 알고, 그것을 버린 뒤에 보자'고 생각하나니, 이것을 첫째 버리는 경계라 한다. ……

비구는 안의 빛깔이라는 생각이 없이 밖으로 빛깔을 관찰하여 '저것은 푸르러 푸른색서 푸르게 보이고, 푸르게 빛난다. 그래서 한량없고 한량없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윤택하게 하여, 마음에 즐거워 조금도 미움이 없다. 그러나 저 빛깔을 버린 뒤에 알고, 저 빛깔을 버린 뒤에 보자.'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다섯째 버리는 경계라고 하느니라. …노란색…흰색…[29]

예배를 목적으로 형상을 대하는 신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여래의 절에 예배하려는 이는 열한 가지 법으로 예래의 절에 예배하여야 한다.

열한 가지 법이란 무엇인가. 용맹스런 뜻을 내어 견딜 수 있기 위해서요, 뜻이 어지럽지 않아 마음이 한결같기 위해서이며, 온갖 지관에 뜻이 전일하기 위해서요, 온갖 생각이 아주 쉬어 삼매에 들기 위해서이며, 생각이 한량없는데 다다르되 지혜를 말미암기 위해서요, 상호만으로는 그 뜻을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위의로 말미암아 그 뜻

28)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1, 주 25)의 글, p. 235.
29) 『증일아함경』3, 제59권, 「제일득경 제4」, p. 393, p. 394.

이 맑고 고요하기 위해서요, 이름 때문에 뜻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이며,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상이 없기 위해서요, 부드럽고 연한 음성은 범음에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니라.[30]

이와 같이 여래를 예배함에 그 상호나 형상을 보는 것의 목적은 수행임을 분명히 하였다.

석가모니는 사원 생활의 필요와 신도들의 공양에 대해 미술을 허락하였으나 그것을 부정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형상인 미술과 인식 주관인 '我'를 부정하는 수행을 연결시킴으로써 불교미술과 불교사상의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이로써 이후 사상적으로나 미술적으로 성대하게 발전한 대승불교에서 中道사상에 입각한 불교미술로 발전하게 되는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3. 석가모니 생존 시 건립된 탑

1)석가모니 髮爪塔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탑의 기원은 석가모니 열반 후 조성 된 불사리탑이 아니고 생존 시 머리카락과 손톱을 모신 탑이었다. 이는 앞의 주 10)의 "어찌하여 여래 발조탑에 (바르는) 향을 바르지 않고 香泥를 땅에 칠하지 않느냐?"는 말에서 이미 석가모니 생존 시 기원정사에 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31]

이 석가모니 발조탑의 기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일화가 있다.

---

30) 『증일아함경』2, 제48권, 제50「예삼보품」, p. 433.

31) 그 외에도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 제15권,「제2문자섭송」,「제3문자섭송」에도 '비구들이 신도들이 공양한 꽃다발과 좋은 향니를 발조솔도파에 공양하였다'는 내용 등이 있다. p. 296, p. 297.

먼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서는 '석가모니의 본국이 악생왕의 공격을 받았을 때 석가족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악생왕의 군사를 살상하지 않는다는 약속하였는데 이를 모른 섬바가 악생왕의 군사를 살상하였다. 이 때문에 석가족에서 축출 당하게 된 섬바가 부처님께 기념할 것을 주시면 공양하여 여래를 받들겠다고 청하자 부처님께서 머리카락과 손톱을 주시니 이를 가지고 바구다국으로 가서 왕이 되어 큰 탑을 세워 여래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모시어 공양하였는데 그것을 섬바탑이라고 한다.'[32]고 기록되어 있다.

또 하나는 『사분율』에서 "부처님께서 라자그라하성에 있을 때 구바리라는 왕자가 전쟁에 나가게 되어 부처님을 찾아 와 머리카락을 달라 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 곳 마다 승전하고 돌아와 탑을 세웠으니 이것이 부처님이 살아 계실 적의 탑이었다"[33]라 하고 있으며, 『십송율』에서는 급고독장자가 부처님께 "세존께서 인간세를 유행하시면서 교화하실 때에도 제가 늘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도록 약간의 성물을 남겨 주셔 공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 청하고 이어 머리카락과 손톱을 모시는 탑을 세울 것을 청하여 허락받았다.[34]는 세 가지 다른 기록이 있다.

그 중에서 『십송율』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탑의 조성에 관하여, 적, 흑, 백색의 단청, 벽화, 日傘을 매달 조형물, 난간, 난간에 꽃을 꽂거나 놓을 수 있는 그릇과 말뚝, 탑 주변에 짐승들이 들어와 더럽히는 것을 방지할 출입문 설치에 관해 급고독 장자가 요청하는 내용이 이어져 다른 기록보다 더 자세히 탑의 구성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여래발조탑에 조성과 관리에 관하여 「起塔法」으로 정리하고 있다.

---

32)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1, 제8권, 제2문 「자섭송 4」, pp. 146-160.
33) 『사분율』3, 제52권, 「여러 가지 법 3」, pp. 329-331.
34) 『십송율』3, 제48권, p. 272.

기탑법이란, 급고독거사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신봉하였기에, 부처님께서 계신 처소를 참례하여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드리고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여러 나라로 돌아다니실 적에 제가 세존을 뵙지 못하는 까닭에 몹시 애가 탑니다. 원컨대 제가 공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물건이라도 내려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다. 이에 부처님께서 손톱과 머리카락을 내려 주시면서, '거사여, 네가 이 손톱과 머리카락에 공양하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거사가 즉시 부처님께 '원컨대 세존이시여, 제가 그 머리카락을 모시는 탑과 손톱을 모시는 탑을 세우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다. 이에 부처님께서 '머리카락을 모시는 탑과 손톱을 모시는 탑을 세우도록 허락하노라.'고 말씀하셨으니, 바로 이것을 기탑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탑지(塔地)란, 탑이 속한 대지이니, 논이나 밭 가운데에 처음 탑을 세우더라도 이를 탑지라고 하는 것이다. 감탑법(龕塔法)이란, 부처님께서 감탑과 주탑(株塔)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바 있고, 또 부처님께서 모든 종류의 탑을 이룩하도록 자세히 허락하셨으니, 바로 이것을 탑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탑물무진(塔物無盡)이란 비야리의 여러 상인들이 탑물을 출자한 이익금으로 탑을 공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익을 얻으려 멀리 떠나가면서 재물을 가져와 비구에게 보시하면서 '장로시여, 탑물을 출자한 그 이익금으로 탑을 공양할 수 있습니까?'라고 청하자, 이 비구가 '부처님께서는 아직 우리들이 탑물을 출자한 이익금으로 탑을 공양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소'라고 대답하고 이 같은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에 부처님께서 '승방의 정인이나 우바새가 탑물을 출자하여 탑에 공양함을 허락하노라.'고 말씀하셨으니, 바로 이것을 탑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무진공양탑법(無盡供養塔法)이란, 탑에 공양드리는 바를 흰색, 빨간색, 푸른색, 노란색 등의 여러 가지 색깔로 탑과 여러 장신구를 공양하도록 부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것을 공양탑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장엄탑법(莊嚴塔法)이란, 탑을 꾸미는 바 금강좌나, 높은 당사, 높은 누각, 이층누각에 여러 가지 보배구슬, 영락, 당번, 꽃, 일산, 금, 은, 진주, 자거, 마노, 유리, 파리 등의 온갖 보물을 매다는 것이니. 이 같은 묘한 장엄구로서 탑을 공양하는 것이다. 이를 장엄탑법이라고 한다. 화향영락법(花香瓔珞法)이란, 탑에 공양드리는 바를 화향, 말향, 도향, 꽃, 영락, 보배영락을 나열하고, 등을 켜서 여러 가지 음악을 연주하고, 향을 벽에 칠하고,

향합을 배치하되 꽃과 향수와 향유를 바닥에 뿌리는 것을 화향영락법이라고 하는 것이다.[35]

「기탑법」의 내용은 맨 앞에 탑에 처음 세워지게 된 인연에 대해 말하고, 이어 탑의 터를 '탑지'라 하고, 탑의 조형구성으로 '감탑법'을 말하면서 그 내용으로는 벽감을 조성하는 '감탑'과 기둥을 세우는 '주탑'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탑에 대한 공양이나 장식에 대해서 규정하여 상인들이 '탑물'의 이익금으로 탑을 칠하거나 장신구를 탑에 공양하게 한다는 '탑물공양', 탑을 여러 종류의 깃발, 일산, 보배를 다는 것을 '장엄탑법', 각 종 향을 피우거나 바르고, 꽃과 꽃다발, 보배로 만든 목걸이류 등을 걸어두고 음악을 연주는 등을 '화향영락법'이라 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에서 감탑과 주탑은 기원전 300년 이후 건설되었다는 산치대탑 이후 인도의 불교성지에 조성되어 현재 남아 있는 불사리탑과 아잔타석굴 등의 벽감과 列株에 그 형태가 남아 있다. 특히 아잔타 석굴 안에 탑을 모시고 그 앞에 열주를 조성한 것과 같은 석굴 구성은 『십송율』에서 급고독장자가 부처님께 석굴 조성을 허락받는 내용과 일치한다.

또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제가 석굴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허락하노라."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제가 굴 속에 탑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굴 속에 탑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노라."
다시 급고독거사가 '부처님께서 내가 굴 입구에 문을 달 수 있도록

35) 『십송율』4, 제56권, pp. 182-3.

허락하시다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부처님께 사뢰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허락하노라."

"부처님께서 제가 굴 안의 탑에 보개를 씌우도록 허락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허락하노라."

"부처님께서 제가 대들보를 밖으로 내어 달도록 허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허락하노라."

"부처님께서 제가 두공을 설치하도록 허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허락하노라."

"부처님께서 제가 기둥을 세워 탑을 만들도록 허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허락하노라."

"부처님께서 제가 색색의 진흙이나 백회로 탑의 기둥을 꾸미도록 허락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둥을 장식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부처님께서 제가 기둥이나 탑에 벽화를 그리도록 허락하시면 좋겠습니다."

"남녀가 교합하는 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청허하노라."[36]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내용은 '탑물공양'에서 "탑물을 출자한 그 이익금으로 탑을 공양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요청은 비야리의 상인들이 자신들의 '탑물' 출자금의 이익을 탑에 공양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상인들이 소형의 모형탑을 만들어 각 지에서 팔아 이익금을 낸 후 그 이익금으로 탑에 단청 등 장식을 하거나 공양물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탑물'이다.

「기탑법」의 탑물공양에 관한 내용은, '탑물', 즉 모형탑이 대승불교시대에 출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석가모니 재세 시에 비야리 지역 상인들에 의해 만들어져 인도 각 지로 전해졌다 추론의 근거

36) 『십송율』3, 제48권, p. 274.

가 된다. 소형 모형탑이 석가모니 재세 시에 조성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다음의 기록에서도 가능하다.

> 그때에 비구들이 생각하되, '만일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다니도록 허락하신다면 가지고 다니리라'하였다. 비구들이 부처님께 사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지고 다니라"고 하셨다. 어디에 둘지 모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 은, 보배, 잡보배의 탑에 두던지 발사집남바옷감이나 두두라옷감으로 싸라"고 하셨다. 어떻게 가지고 다닐지 모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를 "코끼리나 말의 수레나 가마에 싣던지 어깨나 머리에 지고 다니라"고 하셨다. 그들이 겨드랑이에 부처님의 탑을 끼고 다니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이 옷을 걷어붙이거나, 목에 걸거나 머리를 싸거나, 어깨를 다 덮거나, 가죽신을 신고 부처님의 탑을 메고 다니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반드시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서 여래의 탑을 어깨에 메든지 머리에 이고 다니라."하셨다. 그들이 부처님의 탑을 가지고 뒷간에 가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깨끗이 가지라"하셨다. 그들이 뒷물을 하지 않고 부처님의 탑을 가지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깨끗한 이가 가지게 하라."고 하셨다. 그들이 부처님의 탑을 좋지 않은 방에다 두고 자기는 좋은 방에서 자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 …… 방에 둘 때는 탑은 윗방에 두고 자신은 아랫방에서 자야한다."…… "시렁 위에나 용아 시렁 위에 얹든지, 머리맡에 두고 자라."하셨다.[37]

이것은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승려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게 되었을 때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석가모니가 교정하여 계를 정한 것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면 부처님 머리카락은 비단옷감으로 싸거나 금, 은, 기타 보배로 된 상자와 같은 곳(이후 사리구가 되는 것)에 담았던 것도 탑이라 말하였던 것 같다. 이는

37) 『사분율』3, 제52권, 「여러 가지 법 3」, p. 331.

이 후 대승불교에서 탑을 조성할 때 사리 대신 부처님을 상징하는 경전 등을 비단에 싸고 여러 가지 보석류를 사리구에 넣어 봉하는 전통이 이 때 부터 유래함을 보여주고 있다. 부처의 머리카락을 비단이나 보석류에 싸거나 넣어 다니라 한 것은 사리불과 목건련이 열반 하였을 때 신도들에게 두 성문제자의 사리도 그와 같이 모시라고 한 것[38]과도 일치한다.

또한 수레나 가마에 싣고 다니거나 어깨나 머리에 이고 지고 다니라한 것에서 보면 크기나 모양이 다양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모신 장신구는 탑의 모형으로 만들어져 상인들에 의해 인도와 주변국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이러한 탑물, 즉 부처님 머리카락을 모신 장신구나 탑모형은 자연스럽게 불교 전파와 연결 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이후 조성된 불상과 함께 인도전역과 나아가 동아시아 각 국에까지 불교가 퍼지는 역할을 하는 불교의 대표적 미술품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리자탑

여래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사리처럼 모신 발조탑과는 달리 실제 사리를 안치한 탑이 석가모니 생존 시에 건립된다. 그것은 사리자와 목건련이 스승보다 먼저 열반에 든 사건 때문이었다.

『사분율』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그 때에 사리불과 목건련이 열반에 들었는데, 어떤 시주가 와서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탑을 세워도 좋다 하시면, 우리들이 세우리라."하였다. 비구들이 부처님께 사뢰니 부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다. 그들이 어떻게 만들지 모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8) 上揭書, p. 329.

"네모나, 둥글게나, 여덟 모로 만들라."하셨다. 무엇으로 만들지 모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이나 벽돌이나 나무로 만들고, 진흙으로 매흙질을 하라."하셨다. 어떤 진흙을 사용할지 모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검은 진흙이나 집 진흙이나 쇠똥 진흙을 쓰던지, 혹은 흰 진흙이나 석회나 백토를 쓰라고 하셨다. 그들이 탑 바탕을 만들려 하니 부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다. 그들이 꽃과 향으로 공양하고자 하니 부처님께서 네 둘레에 난간을 만들고 그 위에다 놓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번기와 일산을 바치려하니 부처님께서 번기와 일산 등의 물건을 놓으라고 말씀하셨다.[39]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는 다음과 같이 보다 자세하게 기술되어있다.

그 때 성 안 사람들이 존자 사리자가 마가다국 나라취락에서 열반하니 그 유골을 사미 준타가가져다 아난타에게 주었고 아난타는 다시 이곳으로 가져온 것을 부처님께서 급고독장자에게 주게 하셔서 장자가 집으로 가져가 공양을 올린다는 말을 들었다.

그 때 승광왕과 승만부인, 행우부인이 여러 장자, 우바새와 비사카우바사카 및 그 외 사람들과 함께 향과 꽃과 기묘한 공양구를 가지고 장자의 집으로 가서 공양을 올렸다. 일찍이 사리자로 인하여 도를 증득한 자들로서 옛 은혜를 기리기 위해 와서 공양하는 자도 있었다. 그 뒤 급고독장자가 볼 일이 있어 출타하면서 문을 잠그고 갔다. 그 때 여러 대중들이 공양물을 가지고 왔다가 문이 잠긴 것을 보고는 복 짓는 길을 막는다고 불평하였다.

장자가 듣고는 …… 부처님께 사뢰기를

"만약 부처님께서 허락하시오면 제가 이제 드러난 장소에 존자의 사리탑을 세워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공양하도록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마음대로 하라하셨다. 장자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

39) 上揭書, p. 328.

"벽돌을 사용하여 두 겹으로 기초를 만들고 다음은 탑신을 놓고 그 위에 복발(覆鉢)을 놓되 높이는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는 평두(平頭)를 놓되 높이는 12척으로 하고 방은 23척으로 할 것이며, 크기의 대소중에 준하여 윤간(輪竿)을 둘러 세우고 다음은 상륜(相輪)을 붙이되 그 상륜을 겹치는 수는 혹 하나, 둘, 셋, 넷에서 열셋까지 하고, 다음에 보병(寶甁)을 두도록 할지니라."[40]

이 두 기록을 통해서 당시 사리자의 탑의 재료와 모양을 추측할 수 있다. 우선 사리자의 탑의 재료는 벽돌로 조성된 塼塔의 형식이었던 것 같다. 탑 조성 전에 석가모니는 사리자의 신도들에게 돌, 벽돌, 목재를 적절히 쓰라고 하였는데, 위의 두 번째 인용문에 보면 실제 건립은 벽돌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탑의 구성은 기단, 탑신, 복발, 평두, 윤간, 상륜, 보병으로 되어 있다.

기단부는 벽돌에 진흙을 이용하여 붙여서 두 겹으로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탑신을 올리라고 지시하였는데 『사분율』에 나오는 간략한 지침을 보면 사각, 원형, 팔각으로 제시되었으나 현재 기원정사에 남아 있는 사리자탑의 탑신은 사각으로 되어 있다. 탑신 위에 반구형의 복발을 올리고 그 위에 다시 평평한 갓모양의 덮개를 올리고 기둥 모양의 윤간이 있고 그 위에 상륜을 겹쳐 올리고 맨 위에 보병을 올렸다. 전탑으로 사발을 엎어놓은 것 같은 탑신부와 복발부분이 거대한 돔 형식을 이루고 상륜부에 여러 겹의 보륜이 있고 정상부에 우산 모양 등의 장식물이 있는 불사리탑과는 구성과 모양이 유사하다. 다만 석가모니의 사리탑보다는 규모가 작고, 정상부에 보배 병 모양을 상징물을 올린 것이 차이점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서는 "만약 여래를 위하여 탑을 만든다면 마땅히 앞의 것(사리자탑)과

40)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1, 제18권, 「자섭송1」, pp. 373-4.

같이 갖추어서 할 것이요, 만약 독각을 위한 것이면 보병을 두지 말며, 만약 아라한이면 상륜을 네 겹(四重)으로 하고, 不還(아나함)이면 3중, 一來(사다함)면 2중, 預流(수다원)면 하나를 할 것이다. 만약 범부선인의 것은 평두만으로 하고 輪蓋는 없이 할지니라."[41] 라고 부처의 탑과 성문의 탑을 같이 하고, 이외 독각과 깨달음의 단계, 범부의 탑에 차별을 두는 조항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사리자탑은 불교 탑의 원형으로 조성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위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리자탑을 조성하고 공양하는 주체는 사리자의 신도들이었다. 이들이 사리자탑을 조성한 의도는 존경의 의미 "옛 은혜를 기리기 위함(追念昔恩)"이었으나 더불어 "복 짓는 길을 막는다.(障生福路)"[42]는 말을 보면 기복이라는 신앙적 의미도 동시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불탑신앙은 석가모니 생존 시에 일관 된 사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한 예를 석가모니가 코살라국 都子지방의 들에서 제자들과 함께 진흙으로 탑을 만드는 일화를 통해 알 수 있다.

>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 "지난 세상에 가섭불이 열반에 드신 뒤에 시비가시라는 국왕이 여기에서 …… 큰 탑을 세우고 큰 공양을 올리되 …… 두 무리 대중(에게) …… 첫 번째 공양을 시켰던 (곳이기에 내가 미소 지었던 것이다.)
> 그 때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그리고 가셔서 진흙 한 덩이를 가져다 여기에 놓으시고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

41) 上揭書, p. 374.

42) 咸持香花奇妙供具 詣長者宅俱申供養 或有曾因舍利子故得證道者 追念昔恩亦來供養 後於異時給孤獨長者 有緣須出 鎖門而去 時諸大衆咸持供養來至門所 見其門閉共起譏嫌 長者何因障生福路『大正新修 大藏經 第二四卷 律部三』, p. 291.

설사 백 천 개의 영락이
모두가 염부단금이더라도
진흙 한 덩이를 파다가
탑을 세우는 것만 못하리.
……
설사 백 천 개의 황금 벽이
모두 염부단금이라 하더라도
진흙 한 덩이를 파다가
탑을 세우는 것만 못하리.

그 때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가 모두 진흙 한 덩이씩을 파다가 거기에 놓아 곧 큰 탑을 이루었다.[43]

또 탑을 소제하는 공덕에 대해서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탑을 쓰는 사람은 다섯 가지 공덕을 성취한다. 어떤 것이 다섯 가지인가. 탑을 소제하는 사람으로서 물을 땅에 뿌리고 기왓장 조각이나 굴러다니는 돌을 치우며 땅을 고르고 정성들여 쓸며 더러운 것을 치우면 비구들이여, 이것이 이른바 '다섯가지 일이 있어 공덕을 얻게 한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공덕을 얻으려거든 이 다섯 가지 일을 행하도록 하라.[44]

라고 하고 있고, 「기탑법」에서도 '장엄탑법'과 '화향영락법'을 제정한 것을 보면 탑의 관리나 공양이 석가모니 생전부터 일상적으로 행해졌던 것이다.

실라벌성에서 였다.
어느 존경하여 믿는 바라문과 거사들이 묘한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비구들에게 보시하니 다 받지 않았다.……

---

43) 『사분율』3. 제52권, 「여러 가지 법3」, pp. 333-5.
44) 『증일아함경』1, 제25권, 제33 「오왕품6」, p. 519.

비구들이 발조솔도파에 달아서 공양하니 그들이 말하였다.

"성자여, 어찌 우리가 발조탑을 못 보았겠습니까. 우리들이 벌써 탑에 공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가지고 와서 당신들께 드린 것입니다."

비구들이 방문 위에 걸으니 속인들이 볼 때 부처님께서 계신 법당이라고 생각하고 곧 절을 하였다.[45]

믿고 공경하는 속인이 좋은 향니를 비구들에게 보시하니 ...…

곧 가져다가 부처님 발조탑에 바르니 그들이 또 먼저와 같이 이미 자기들이 발랐다고 말하였다.[46]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탑과 성문탑은 석가모니 열반 후에 조성되고 예배된 것이 아니고 이미 석가모니 생존 시에 과거불을 상징하는 탑도 조성되었고, 석가모니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모신 탑이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었으며, 사리자의 열반으로 성문탑이 조성되었고, 그러한 탑에 승려와 신도들이 일상적으로 예배하고 공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탑의 조성과 공양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불교를 대표하는 신앙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데 그 원형이 바로 석가모니 생존 시 건립된 여래발조탑과 성문사리자의 탑이다.

4. 맺음말

지역과 언어 등 근본적인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동질성 갖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공통된 상징물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종교예술의 영역은 바로 이 지점에서 고찰될 수 있다. 불교가 서력 기원 후 1세기 이후 세

45)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1, 제15권, 「제3문 자섭송7」, p. 296.
46) 上揭書, 위의 글, 「자섭송 9」, p. 297.

계적인 종교로 성장하는 데는 불교미술의 역할이 컸다. 그 대표적인 상징물이 탑이었다. 거대하고 움직일 수 없는 탑이 아니라 모형의 소형탑이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소형탑은 경전과 함께 인도 각지와 아시아 전역에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함께 전달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법현, 현장 등 중국 유학승들의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휴대할 수 있는 소형의 모형탑이 석가모니 생존 시에 조성되었음을 본고에서 밝혔다.

지금까지 불교미술학계의 연구에서 불탑을 비롯해서 불교미술이 부파불교 시대 이후에야 나타난다고 하는 것 달리 본 고에서 비록 그 유물이 현존하지는 않지만 석가모니 생존 시의 가르침과 사원의 생활을 비교적 윤색 없이 알 수 있는 율장과 아함부 경전의 미술관련 문헌 자료를 통해 불교미술은 이미 석가모니 생존 시에 원형이 조성되고 사상적 방향이 제시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사원 생활의 필요와 신도들의 공양에서 시작된 불교 미술 작품과 행위를 석가모니가 수행의 한 방편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대승불교 사상과 미술로 발전하게 되는 원류가 근본불교의 가르침에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이 논문은 불교미술 연구자들을 위한 불교 미술의 사상적, 도상적 원형 연구에 필요한 1차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두며, 이 연구의 성과는 후속 연구에서 대승불교 경전에 나타난 불교 미술 사상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四分律』1,2,3, 東國譯經院, 2002.

『十誦律』1,2,3,4, 東國譯經院, 2002.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雜事』1,2, 東國譯經院, 2002.
『中阿含經』1,2,3, 東國譯經院, 2002.
『雜阿含經』1,2,3, 東國譯經院, 2002.
『增一阿含經』1,2, 東國譯經院, 2002.
『大正新修 大藏經 第二十三卷 律部 二』, 大正一切經刊行會, 東京, 大正14년 (1925년)
『大正新修 大藏經 第二十四卷 律部 三』, 大正一切經刊行會, 東京, 大正15년 (1926년)
『大正新修 大藏經 第一卷 阿含部 上』, 大正一切經刊行會, 東京, 大正13년 (1924년)
『大正新修 大藏經 第二卷 律部 下』, 大正一切經刊行會, 東京, 大正13년(1924년)

2. 단행본

『佛敎大辭典』 상,하. 弘法院, 1998.
Dietrich Seckel, 白承吉譯, 『佛敎美術』, 悅話堂美術選書 49, 悅話堂, 1996.
벤자민 로울랜드 지음, 이주형 옮김, 『인도미술사』. 도서출판 예경, 1999.

(투고일: 2021. 2. 8 심사완료일: 2021. 3. 19 게재확정일: 2021. 3. 23)

이종억
소 속: 동국대학교 미술학과(불교미술) 박사과정
주 소: 경북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038-21, 208호
전자우편: innercalm23@hammail.net

[Abstract]

A Bibliographical Study on Fundamental Buddhist Art: Focusing on Vinaya Pitaka and Āgama

YI, JONG-EOK

This paper analyzes the early Buddhist scriptures of *Āgama* such as *Dīrghāgama, Madhyamāgama, Sayuktāgamasūtra,* and *Ekottarāgama* and the early Buddhist scriptures of *Vinaya Pitaka* such as *Dharmaguptaka Vinata, Ten Chanting Law,* and *Mulasarvastivadavinaya Ksudrakavastu.*

This paper presents new research findings through the research methodology of bibliographical study. It was believed that Buddhist Art emerged from the age of Schola Buddhism which was about 100 years later after the death of Buddha. However, this bibliographical study finds that the archetype of Buddhist Art was aroused at the time of Buddha.

Here com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the archtype of the unified Buddhist art ideas was described in the early Buddhist scriptures. Second, Buddhist iconography which was allowed by Buddha has been served more than thousands of years. Third, the archtype of Buddhist Stupa was found in the early Buddhist scriptures of Sariputra Stupa. This study systematizes the theory of the Buddhist iconography by analyzing the early Buddhist scriptures.

Key words : Fundamental Buddhist Art, Art Ideas of Buddha, Buddha's hair-nail Stupa, Sariputra Stupa, Vinaya Pitaka, Āgama